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1월 15일 (제82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 (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역경을 이긴 축복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6:10~13).

하나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셨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은 새 성전을 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체육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잘 안다. 등받이 없는 불편한 의자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내 맘은 편치 않았고, 한 마디 불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더욱 죄송하고 감사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가 되매 역경지수가 높아진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새 집에 이사하게 되면 가구도 바꾸고 커튼도 바꾼다. 그러나 우리는 새 성전 입성을 기해서 마음과 정신을 바꾸었으면 한다. 새 성전에 입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밤에 그 반찬이 되기 때문이다. 식어버린 열심, 나태해진 신앙을 잘라내지 않으면 새 성전 입성의 의미가 상실된다. 환경이 바뀐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마음과 정신이 변화된 미래를 만든다. 개혁(改革)!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가족을 벗겨내는 대변혁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넉넉히 이루자. 다시 한 번 추수감사절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린다.

깨달음이란 내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지난 금요일저녁예배에 우리는 김상욱 목사의 기도원 설교를 함께 보았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목사였습니다. 17년 동안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들어서 ‘야, 너 이제 목사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목사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제 입장에서 본 것이던 것이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종은 ‘하나님 편의주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장된 1성전 입성을 앞두고, 또한 새로운 30년을 시작함에 있어 지금의 정신 상태와 각오로는 안 된다는 진단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제자들을 향하여, 직원들을 향하여 “깨달았냐?”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며 깨달음을 향한 채찍질이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그날 그시에 여러분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예전에 제자들을 때리

행할 것입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면 3시 예배에 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2부에 잠깐 얼굴 내밀고 가고, 오전에 왔다 가는 교역자나 제직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친 성도들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전도한 영혼들을 모시고 오후 예배에 와야 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하루 종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짓지도 꾸미지도 않은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어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듣고 배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목사님은 깨달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달음이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 역시 사람은 가식적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진정 깨달았다면 그 배움 자체가 완전히 나에게 체화되고 습관화되고 조직화되어 분명할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새로

면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맞고 정신 차릴래, 나중에 예수께 맞을래?’ 나중에 예수께 맞는다면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합니다. 목사였다고, 장로였다고 보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켜 행했느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느냐? 네 영혼의 자녀가 몇이냐? 네 열매를 내어놓아라!’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겁니까?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1성전 입성을 앞두고 예배의 개혁을 선포하셨다. “4부 예배 시간을 오후 3시로 바꿉니다. 4부 예배는 전혀 기도하며 찬송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제한도 두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핍박을 견디며 예배처소를 옮겨 다녔고, 등받이도 없는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며 30년 목사님의 뒤를 따라왔다. 그런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주셨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제 진짜 깨달아 내 것이 되었다면, 내 마음이 지시하고 목표하는 대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독려에 적극 부응하여 새 성전, 새로운 30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보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우루과이 집회 11월 23일(월) ~ 12월 4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8)



자식 많은 엄마, 병든 것 보았나?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두었습니다. 원래 8남매를 낳으셨지만 하나를 잃고 7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정말이지 아플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어머니는 집안을 살피고 애들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일로 매일 분주하셨습니다.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틈틈이 나가 행상을 해서 가정경제에 보태시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애쓰셨을까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곧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역으로 게으름은 무책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영적 자녀를 몇이나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이 없는 것은 영적 자녀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중에 대를 이를 자녀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육적으로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적 무자식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막11).

언젠가 경기예수중심교회 담임인 신현명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다보니 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자녀도 많이 기르면 힘든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는 말씀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듯, 전도해서 영적 자식을 낳다보면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전도한 사람 때문에 행동과 말에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언행심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면 내 맘대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건강을 찾으려면 운동이 제일이고, 신앙을 지키려면 전도가 으뜸입니다.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3).

전도는 전쟁입니다. 악한 것들은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꾀계를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정보에 능해야 하고,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정보는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무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의 것들을 명령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문무(文武)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하고, 인격도 갖추어야 하며, 또 능력도 있어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행14:3). 빌립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전도하니 모든 무리가 그를 좇더라(행8:5~6).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 무기, 신령한 은사가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고, 사랑도 해본 자가 하고, 전도도 해본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정태 장로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답니다. 김 장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쿵쥔거리는 까닭은 ‘오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어서 전도해야지.’ 하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김 장로는 전도 잘 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김 장로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

도를 잘 하느냐 물었더니 “저는 그저 대화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꾸준히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꾸준히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에 있어 필요한 것이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야 하는 것이 전도이고, 전도하다보면 이런 핍박도 당하고, 저런 모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이 사도 바울도 전도함에 있어 적응력이 발휘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에 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9:20~23).

성공한 사람들은 IQ(감성지수)나 EQ(지능지수)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AQ(역경지수)가 뛰어난 것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역경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이겨내고 적응했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은 그릇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고, 온도에 따라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물처럼 적응력이 뛰어난

자가 전도도 잘 합니다. 저도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그곳에 빨리 적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이 언젠가 가슴에 별을 단다는 생각으로, 태릉선수촌의 국가대표선수들이 언젠간 금메달을 땀나는 소망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내가 불 붙어야 남도 불 붙일 수 있다

날에 받을 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여러분, 그날의 영광을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목적과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으며,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훗날 아름다운 결실로 맺힐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아직 영적 자식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나무가 실과를 맺지 못해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과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실과를 맺겠으니 기회를 달라’(눅13:8~9)고 한 것처럼, 이 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여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취업대란을 해결하는 길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취업대란’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이야말로 취업대란을 겪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일을 배우기 위해 밥만 먹여주고 잠자리만 해결해주면 무슨 일이라도 감당해내었습니다. 중화요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배달통부터 시작해서 온갖 굵은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국자로 머리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일을 배웠다는 인생 선배의 무용담을 귀가 달도록 들었습니다.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는 이미 그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

우리나라에서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일은 죄다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교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전국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입학정원은 도합 521,838명, 곧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인원은 연간 12만 명 정도이니 대기업을 선호하는 취업준비생들은 휴학을 반복하며 대기업을 문 두드리지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능직 청소부를 뽑는데도 대졸자들이 몰려들어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신문기사

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스펙을 쌓는다고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공부에도 큰 관심이 없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피터 팬 증후군의 심리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완전히 판판입니다. 직원을 뽑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 보이지 않던 일자리가 보이게 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직장이나 고액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만나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성취감을 얻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작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갈빈의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하면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므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하므로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장이라면 작아도 괜찮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취업대란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구원의 감격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부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심드렁하게 앉아 있는 친구들 사이로 은혜가 쏟아지는 한 청년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예배를 마친 후, 그 청년을 찾아 예배당 밖에 나가보니 하늘을 보며 울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나고 물었더니 그 청년은 여전히 흥분된 상태로 절규하듯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찌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엄청난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 한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도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청년의 고백은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축복도 모자라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를 잃는다’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질된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 회복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 운동이요, 첫사랑 되찾기 운동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기름을 붓는 운동입니다. 지교회마다 새벽기도의 불이 일고 있고, 서울교회는 새 성전 입성을 기해서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뜨겁고 격동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찌로다
(시편 107:22)



::성경에세이::

대나무를 보고 깨달으라

여보게!
우리 장성 기도원에서 조금 나가면 담양이란 곳이 있네. 그곳에는 대나무가 유명하지. 죽녹원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대나무가 밭을 이루고 있다네. 하늘로 쪽쪽 뻗은 나무를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오지. 대나무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준다네. 예부터 대나무는 사군자 중의 하나로 덕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하곤 했고, 십장생의 하나로 여겨왔지. 예전에 율곡의 생가인 강릉 오죽헌을 가봤는데, 그곳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서도 대나무와 벗하며 유년시절을 보낸 그들이 성품 곧은 대학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네.

대나무는 땅 속에서 오래 뻗어 나가며 뿌리를 키워 싹을 틔운 다음 5년 만에 비로소 죽순을 땅으로 내놓는다네. 인내와 기다림이 바탕이 된 것이지. 우물에 가서 송늬를 찾는 우리 민족에게 대나무의 기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네. 뭔가 빨리 결과가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제발 대나무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고 싶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후 일단 죽순이 올라오면, 1년 만에 거의 20m에 가깝도록 자란다네. 놀라운 성장이지. 경이에 가까운 그 성장의 요인은 오랜 기간 동안 땅 속에 에너지를 비축했기 때문이지. 노력의 대가라는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대나무를 통해 깨달아야 하네. 노력하여 실력을 갖추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대나무가 곧게 오른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은가. 이는 곧 올곧은 절개로 신앙을 말하지.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목적한 바를 향하여 질주하는 곧고 굳은 믿음이요 신앙을 의미한다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오직 쏫대를 향하여 달린 것처럼 말일세. 이렇게 대나무가 곧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마디를 맺기 때문이라네. 대나무를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가 맺은 걸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라네. 몇 백 년 된 나무도 태풍 앞에서 넘어지나 대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잘 버티지. 이것은 결단이고 의지라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결단했더니 아무도 그들을 넘

어뜨리지 못했지 않은가.
대나무를 통해 깨닫고 배울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네. 대나무는 속을 비워 대통을 이루지. 탐욕을 버린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고 속을 비웠기에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네. 많은 사람들이 비우지 못해서, 놓지 못해서 그것에 얽매이고 말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늘 말하는 것이지만 소유욕을 버리고 성취욕을 가져야 하네.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에 연연해서 그것을 소유하느라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쌓아둘 것에 전념해야 한다네.

여보게!
그저 죽순이 맛있고, 대통밥이 맛있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는 자네가 대나무를 보고 깨닫기를 바라네. 그 안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내 영혼이 사는 법이 있으니 이제 마음을 비우고 결단하게나.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겐 오늘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음을.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몇 달 전 방송취재 차 강남의 한 유명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TV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명의라고 소문 난 원장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날도 1층 주차장부터 환자손님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 원장님께 의학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인터뷰를 마친 후 왜 이 병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자신을 찾아온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만나준다는 세심함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방송에도 나오고 입소문이 나면 병원들은 소문을 듣고 온 의사가 아닌 아래 부원장들에게 환자들을 맡기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맛집을 찾아갔더니 본점이 아닌 체인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도 아닌데 매일 300명의 넘는 환자를 한 원장님이 진료한다고 합니다. 올 여름 메르스로 모든 병원이 파리가 날릴 때에도 이 병원은 환자수가 줄지 않았다고 하니 그만큼 병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원장님의 모습이 총회장 목사님 말씀 중 '나는 차선을 모른다.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와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에게 저 원장님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루에 300명을 진찰하는 의사도 있는데 고작 사오십 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내 양떼들을 살찌우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취재를 끝낸 후 제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의 연락을 했습니다.

송헌혜

charisma0691@hanmail.net

변하는 듯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광고에서 혹은 영화에서 나왔던 명대사 중의 한마디이다. 사랑하는 연인의 변심을 앞에 두고 절규하는 주인공의 메시지이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나?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원망과 배신감이 듬뿍 담긴 말이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고 따져 묻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 거친 파도를 마주하는 절벽도 세월의 흐름 따라 그 선이 완만해가고, 바닷바람을 마주하는 나무들은 바람결에 따라 서서히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바뀌나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전1:9),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처음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그 형체를 유지하지 못한다. 인간들의 사랑은 어떨까? 연인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사제지간 등등 모두 조금씩 서로의 관계에 따라 그 색과 깊이가 달라진다. ‘내리사랑’이라는 부모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다. 보호와 관찰 속에서 레이

더망을 좁히지 않던 부모님의 시선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진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대신 자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묵묵히 응원하신다. 자녀의 졸업이 거둬지고 자녀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수록 부모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울창한 나무숲의 그림자가 더 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랑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반응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깊이와 폭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우리는 대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한다. 은혜와 축복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다가도, 시련과 고난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거 아니냐며 애타게 울부짖는다. 내 인생의 고저(高低)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달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단지 내가 요동할 뿐이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연인을 한 번 돌아보자. 그들이 나에게 보내는 사랑의 빛깔은 지금 어떤 색인가? 혹시 그들의 사랑이 변했거나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서로의 사랑이 서로에게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 바닷가의 나무 방향이 바람의 방향을 알리고, 물가에 있는 바위의 형체가 물의 흐름을 이야기해주듯이, 지금 우리의 방향이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것임을 서로의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에 그들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이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1:11).

전훈지
ppjee@hanmail.net

일사각오

영국 제임스 1세의 종교탄압이 극심해지자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영국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1620년 9월, 7개월 동안 노동으로 사들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출발합니다.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센 풍랑과 싸우며 65일 동안 망망대해를 지나 신대륙 아메리카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토병과 인디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해 겨울 동료 44명이 죽는 아픔을 견뎌야했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봄, 인디언 추장으로부터 감사와 옥수수 종자를 얻어 농사를 지었고,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첫 수확한 것으로 감사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추수감사절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감사의 배경에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 신대륙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각오가 그들을 존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필코 정신입니다.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몇 번 시도하

Good News

1923년의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그 당시 억만장자 최고의 부자 일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25년 뒤에 한 신문기자가 그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곱 명 중에 철강회사 사장 찰스 슈어브와 밀농사로 거부가 된 아서 커튼은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상태에서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처드 워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음모와 배신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

고 고독하게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앨버트 홀도 비리혐의로 말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막 풀려나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비모어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는 불면증과 심한 공황장애로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고, 부동산 거부 이반 크루켈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1:14). 부자가 삼대를 가지 못하고,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십년을 가지 못한다는 옛 선진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과 그 죽는 날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진리 중에 참 진리입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복된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질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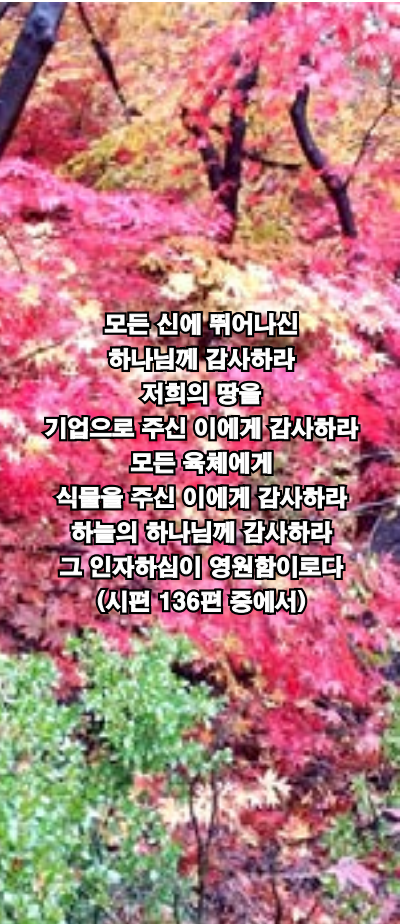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 받으려면

과연 병원이 우리의 기대만큼 안전할까? 작년에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병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 안전하지 못하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애초부터 위험한 과정이 많고 대부분의 일들이 촌각을 다툰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과와 외과 등 여러 진료과의 의료진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며 진료에 관여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환자들마다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료과정을 표준화하기란 쉽지 않다. 2010년 5월 백혈병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던 9살 소아 환자가 사망했다. 당시 이 환자는 마지막 항암치료 중이었다. 항암제를 잘못 주입하여 부작용으로 열흘 후

사망했다. 이 사건은 과로한 전공의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는데, 안전한 진료 여건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시스템이 사고 발생의 크나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안전장치와 의료오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현 상황에서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 미국의 의료정책 연구기관에서 2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주요한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입원 관련된 사항으로는 1.여러분과 신체 접촉이 있는 모든 의료진에게 손을 씻었는지 질문하십시오. 2.퇴원할 때 의사들에게 퇴원 후 집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술 관련사항으로 1.수술을 받는다면

의사에게 어떠한 부위의 수술을 받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동의하십시오. 2.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받을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십시오. 기타 사항으로 1.의심스럽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2.주변에서 여러분의 진료를 조율해줄 수 있는 조연자(주치의)를 구하십시오. 3.여러분을 진료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여러분의 중요한 건강정보를 알려십시오. 4.진료 받을 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도록 하십시오. 5.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결과를 확인 하십시오. 6.의료진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믿을 만한 자료를 이용해 여러분의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시편 136편 중에서)